

# 이번주 청문정국...野, 내일 공수처장 김진욱 정조준

### 20일 환경 한정애·25일 법무 박범계...추가 개각시 내달까지 이어져야, 공수처 부당성 알리기 총력...정치적 중립·위장전입 등 핵심 쟁점

국회가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을 맞는다. 특히 조만간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까지 이뤄지면, 내달까지 청문정국이 이어지게 돼 검증에 마쳐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현미경 검증'을 버리는 국민의힘의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권은 공수처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은 물론 위장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한 점을 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로서는 23명에 달하는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한정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 그린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당면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 5년 전 사법시험 준치를 위한 고시생 모의 폭행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의 성매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책임자

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야당이 이번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온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고위 공직자가 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시간까지 자질과 도덕성을 지적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측근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총복 영동의 선산을 국회의원 당선 뒤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

고, 다주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인 소유 대구 주택과 상가를 친인척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테세이며,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책임자"라며 야당 공세에 방어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영 원내대표는 "이미 검증은 다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까도 까도 나오는 건 부적격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가차 없이 수사하겠다는 강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해철 장관 코로나 대응 회의 참석 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양정철 사면제안론'에 "구체적 얘기 안했다"

### 문 대통령과 지난달 회동 정국 현안 논의...신년회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언급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졌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 대표에게 사면을 제안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양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에서 사면론이 이 대표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보다 청와대와 막후 조정을 거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지며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일단 이낙연 대표는 이날 양 전 원장이 자신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구체적 얘기는 나

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 전 원장을 만난 적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작년 12월에만 문 대통령과 두 차례 독대하며 정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다. 설령 양 전 원장의 사면 제안을 문 대통령의 뜻으로 여겼다고 해도, 매사에 철저한 이 대표의 성격상 문 대통령을 만나서 '팩트체크' 과정은 거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주목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이 오히려 역풍을 맞자 이 대표 측이 양 전 원장을 고리로 청와대에 "좁

섭하다"는 뜻을 전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이 이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낼 경우, 당내에서 일고 있는 사면론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여론 지지층의 여론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우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고리로 사면론에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그나마 버티고 있는 30%대의 지지율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년 회견에서 사면론이 다시 이슈로 부상할 경우, 이 대표에게 약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여의도 브리핑

## 송갑석·양향자,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양향자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 자치분권 활성화 및 정책협의의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양향자·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순애 시의회부위원장, 서대석 서구청장, 지방의회 사·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서구청의 구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마름동 공공 영외탄약고 이전 및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광



송갑석 양향자

주전통생활음악당 건립, 민간공원 특례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생활자원회센터 신축 등 서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윤재갑,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17일 "농업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이지만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다.



이 개정안은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해 향후 농업협동조합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화 지지호소'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징역 6월·집유'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석형 함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동이 사실상 제한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관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nong Solar Energy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